

가상화폐 50%급락 하루만에 65% 폭등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는 등 '널뛰기 장세' 보여... 한국-중국 등 규제 강화 소식 영향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세를 보였던 가상화폐들은 18일(현지시간) 무려 65%나 반등했다.

CNBC뉴스는 이날 한국과 중국 등이 가상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가상화폐들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17일 가상화폐 상위 20개 종목이 지난 24시간 동안 두 자릿수 %의 급락세를 보였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의 경우 17일 오전 한때 9190.59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루 전날 최고가(1만4079달러)에 비해 34.6%나 급락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1만 9800달러 고점에 비하면 반 토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55분 현재(런던 표준시) 가

상화폐 리플이 28% 떨어진 것을 비롯해 비트코인 19%, 아이오타 23%, 모네로 20% 등의 급락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대표주자들은 18일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8일 10시 14분 현재 1만2045.10달러까지 올랐다.

가상화폐 2위 주자인 이더리움은 17일 3주이래 최저 가격인 780.92달러까지 폭락했다가 하루만인 18일 72.57달러로 급등했다.

가상화폐 시세 확인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은 18일 전날 대비 65% 폭등한 1.64달러에 거래됐다. 월트코인덱스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46분(한국시간) 현재 비트코인은 1만1373.98달러, 이더리움은 1031.03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비교 사이트인 크립토크페

어의 찰스 헤이터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의 어 호황과 불황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전날 거래량은 매우 뜸해졌다. 극심한 조정 이후 다 소 시장이 차별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가상화폐들이 급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거래처인 한국과 중국 등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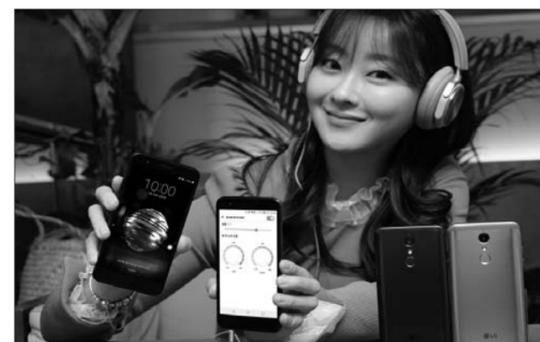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만들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가상화폐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비 이성적 투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대책을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집중거래(centralized trading)를 금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인 판공성(潘功勝)은 지난주 중앙과 지방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집중거래(동시 호가 주문)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집중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지난해 9월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자국 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편의성과 내구성 높였다

19일 모델이 서울 여의도에서 이날 말 출시하는 올해 첫 실속형 스마트폰 LG X4+를 소개하고 있다. 'LG X4+'는 LG 페이, 32비트 하이퍼 IDAC, FM라디오 등 기존 실속형 스마트폰에서 보지 못한 차별화된 편의 기능을 밀스펙으로 완성도 높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색상은 모로칸 블루와 리벤더 바이올렛 2종이다. (사진=LG전자 제공)

생계형 1t트럭 판매 사상 최대치

15.6% 증가... 지난해 15만4774대 팔려 '조선업 등 구조조정·청년실업 영향'

지난해 국내 승용차 판매가 3.5% 감소하고 트럭 등 상용차 판매는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에 사용되는 1t 트럭이 전년보다 15.6%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자동차산업협회가 공개한 '12월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치)'에 따르면 자동차 내수 판매는 2016년 160만 154대에서 2017년 156만180대로 2.5% 감소했다.

승용차는 지난해 129만6904대 팔리며 3.5% 감소세를 나타냈다. 경형 승용차 판매가 19.7% 줄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 소형은 14.0%, 중형은 11.8%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대형승용차는 그랜저의 인기로 17.5% 판매가 증가했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역시 1.5% 판매가 늘었다. 특히 그랜저(IG)는 지난해 12만 9932대 팔려나가며 인기를 입증했다.

상용차의 경우 2016년 25만6775대에서 지난해 26만3276대로 내수판매가 2.5% 늘었다. 버스 판매가 1.6% 줄었고, 트럭은 3.9% 증가세를 나타냈다. 트럭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생계수단인 1t 트럭은 15.6%의 판매 증가세를 나타냈다. 1t 트럭 판매는 2016년 13만3832대에서 2017년 15만4774대까지 증가했다.

/뉴시스

외환위기 지구인 1999년(9만3204대·전년비 61.3%↑)에 비해 6년대 이상 많은 수치다. 1t 트럭은 흔히 '불황의 차'로 불린다. 불황이 깊어질 수록 더욱 잘 팔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선업 등 각 업종에서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특직자들이 대거 양산됐고, 이들 중 다수는 영세 자영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실업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도 푸드 트럭 등 자영업에 나서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1.2% 늘어난 405만6000명을 기록했다. 증가율 1.2%는 2012년(2.0%) 이래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도 전체 실업률(3.7%)의 세 배에 육박하는 9.9%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밀려나온 퇴직자들과 청년 실업자들이 1t트럭을 구매해 자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승용차 판매가 줄었지만 고가인 대형 승용차의 판매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자동차 판매에서도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혼합형 여행상품 뜬다

패키지·자유여행 장점 결합 패키지 인기 급부상

지난해에 이어 '혼행', '스테이케이션' 등의 여행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 패키지과 자유여행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패키지' 상품의 인기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올해도 2017년도의 주요 여행 트렌드가 대부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가운데 올해는 혼합형 패키지의 인기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합형 패키지는 통상 원하는 일정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를 의미한다. 현재는 주로 패키지 일정과 자유 관광 일정을 결합한 형태의 상품을 말하고 있다.

최근 사람들이 이같은 혼합형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패키지 여행 특유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나만의 취향에 맞는 여행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혼합형 패키지 상품의 인기가 점차 상승하면서 여행업체들도 관련 상품들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언급했듯 혼자 떠나는 여행을 의미하는 '혼행'과 특정 도시나 숙소에서 2~3박 이상 비교적 오래 머무는 '스테이케이션'의 인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파크투어에 따르면 지난해 혼행 비중은 5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행의 인기는 지난 3~4년 전부터 점차 상승하고 있어 올해도 그 트렌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짧은 기간으로도 여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춘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TV 예능 등 미디어의 영향으로 유럽 및 유서 유렵(마카오, 블라디보스톡)의 인기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하이트진로, '1664블랑' 5년 만에 4000만병 돌파

프랑스 맥주 '1664블랑'이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수입·판매하는 '크로넬버그 1664블랑(이하 1664블랑)'이 5년 만에 4000만병 판매를 돌파했다.

지난 2013년 하이트진로가 수입하기 시작한 1664블랑의 판매량은 매년 100% 이상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누적판매량 4000만병을 돌파했다. 캔 출시로 2015년에 730만병, 2016년 판매량 확대와 품목 다양화로 1800만 병을 판매하며 전년 대비 약 150%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여성층과 홈술족의 지지를 받으며 가정채널, 유통채널에서 가파른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1664블랑은 편의점, 대형마트 등 가정채널에서 판매하는 수입맥주 전체 제품 중에서 상위 판매 5위권 내에 진입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국은 2016년부터 판매량 순위 세계 3위에 올랐다. 한국 판매량은 불과 4년만에 1664블랑 본고장인 프랑스 판매량의 91% 수준으로 성장한 점에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1664블랑의 판매량 1위는 중국, 2위는 프랑스다. 최근 성장세라면 국내 판매량이 올해 안에 프랑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트진로 유통사업 담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선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은행, 설 명절 특별운전자금 3000억원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19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도내 및 수도권 등 전북은행 영업점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3000억원 한도 내에서 '설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1300억원 증액된 금액으로, 이는 지역 금

용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설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 결제자금, 종업원 상여금 지급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